

보도설명자료



고용노동부

배포일시: 2020.10.14(수)

총 2쪽 (참고 포함)

담당부서: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TF

팀 장 홍정우 (044-202-7763)

사무관 백경남 (044-202-7229)

담당부서: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

과 장 허경민 (044-201-4219)

사무관 노지훈 (044-201-4223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2020.10.14.(수), 조선일보, 국민일보, 세계일보 등 「지원금도 끊겨...저비용항공 무급휴직·해고 본격화」 등 기사 관련 설명

1. 주요 기사내용

- 다음 달부터는 LCC 업계가 모조리 무급휴직에 돌입한다...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는데, 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. (조선일보)
- 진에어와 티웨이항공,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~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. ... 이는 정부가 지급해온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(180일+2개월)이 이달 말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. (국민일보)
-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며 '버티기'를 준비하고 있다. ...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휴직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, 대부분의 LCC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.(세계일보)

2. 설명내용

-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관련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-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·휴직 사업주지원금*과 무급휴업·휴직 근로자 지원금**으로 구성되어 있음

* 유급휴업·휴직 사업주지원금: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(평균임금 70%)의 최대 90%(대규모기업은 75% 1일 최대 6.6만원 월 198만원)까지 지원(~'21.3.31.)

** 무급휴업·휴직 근로자지원금: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% 범위 내(1일 최대 6.6만원 월 198만원, 유급지원금과 동일)에서 근로자(180일)에게 직접 지급

-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(LCC)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·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(240일)이 종료된 이후에도,
 -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
 - 이 경우 평균임금 50% 범위 내(1일 최대 6.6만원, 월 198만원, 유급지원금과 동일)에서 근로자(최대 180일)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또한,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(90일→30일 이상)하여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 내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(180일)을 다시 신청하여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
-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*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
 - * (주)제주항공, (주)진에어, (주)티웨이, 에어부산, 에어서울, 플라이강원
 - 따라서,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(240일)이 종료되어 무급휴직을 할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

꼭!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

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

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

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



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


특히 노인·임산부·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

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



마스크 착용하기



외출 자제, 1~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



대형병원, 응급실 방문 자제
관할 보건소, 1339, 지역번호+120으로 먼저 상담하기



의료기관(*선별진료소)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
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문의



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,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



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